

편집 및 발행인 : 장영태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말레이시아 온라인 구매 증가 ... 택배시장 동반성장 이 끌어

● 국제물류 투자 동향

- 퀴네앤드나겔, 세계 최초 탄소배출 제로 전세기 운항 프로젝트 완료
- 세계 해운사 지각변동 중심에선 MSC

● 글로벌 SCM 심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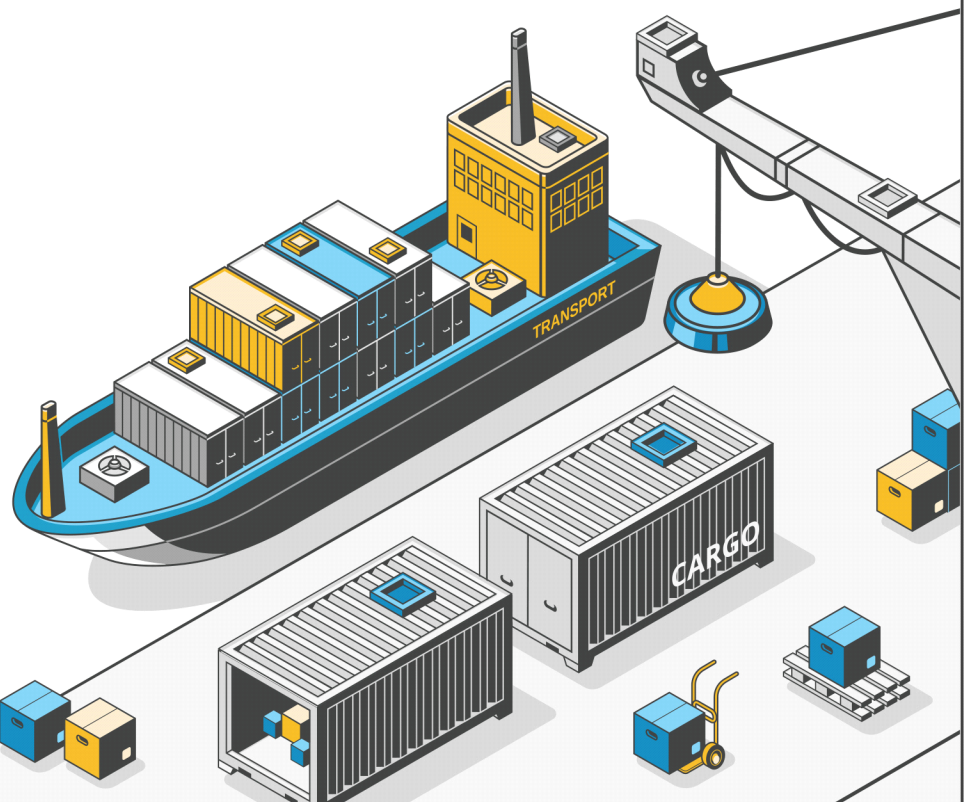
- 러시아, 코로나19 충격으로 자국 수산물 수출구조 개선 빨라진다

● 국제물류 연구동향

- 대만 해상 물류 서비스 공급사슬에서 관계적 이질성에 대한 연구

● 공지사항

- 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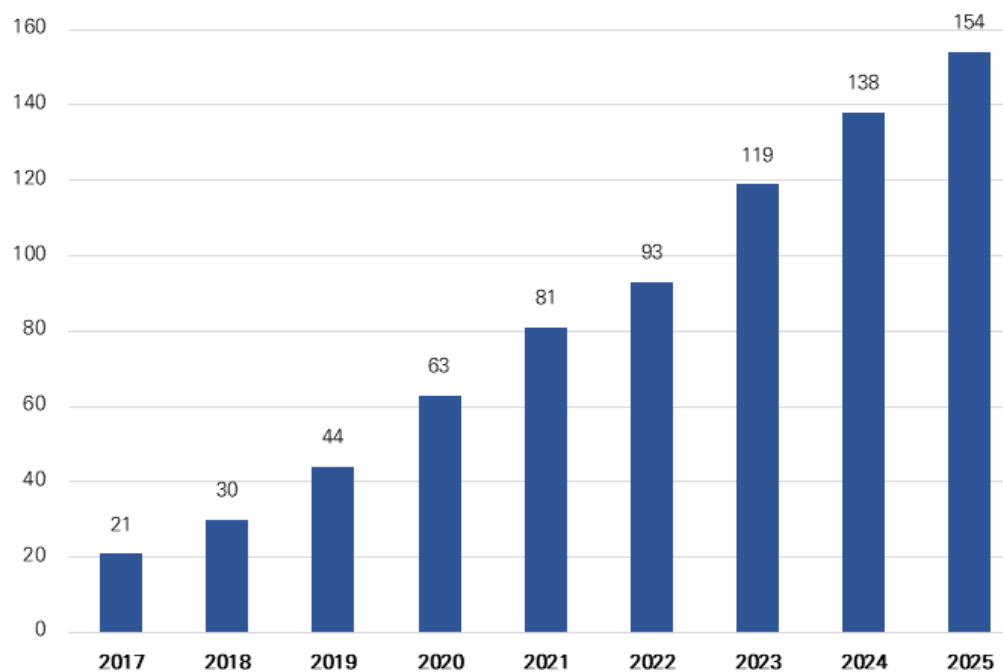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온라인 구매 증가 ... 택배시장 동반성장 이끌어

▶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2017년 이후 2025년까지 연평균 27%의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시장은 2017년(210억 달러) 이후 2018년(300억 달러), 2019년(440달러)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1,5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 변화(2017-2025년)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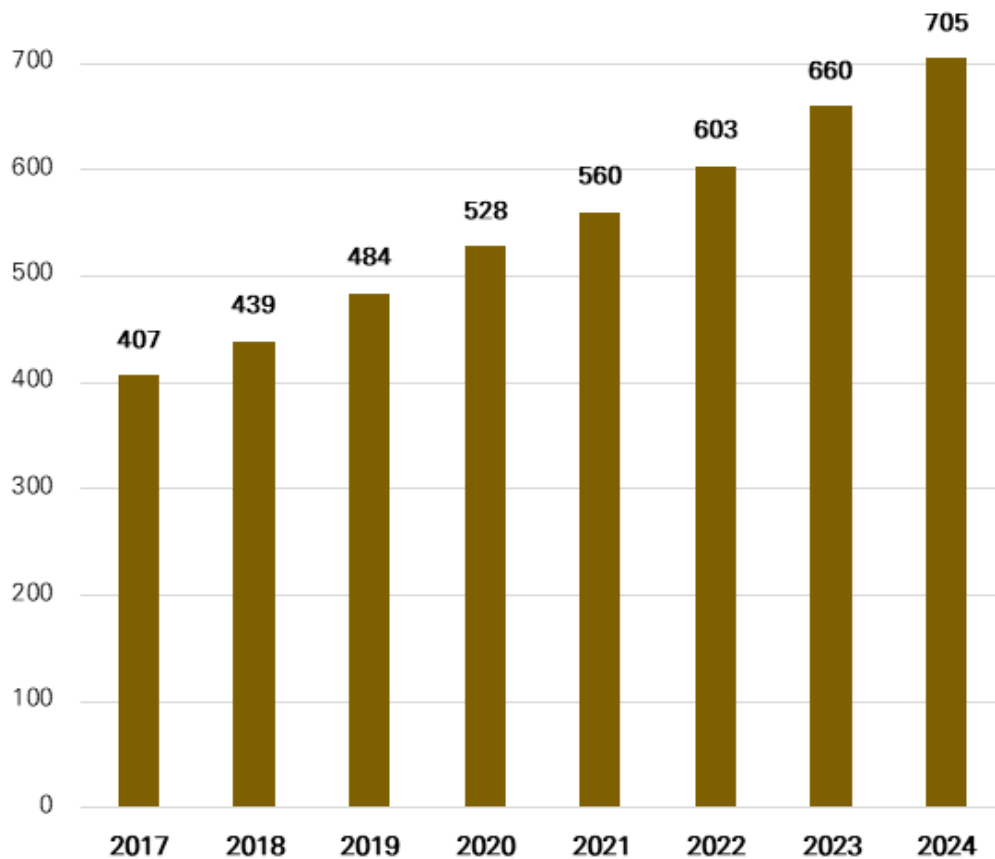
자료 : www.ti-insight.com, (검색일 : 2021.7.12.)

●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라 택배시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7,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 택배시장 규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8.2% 증가율로 성장해 약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몇 년간 소화물 배송 증가로 택배 단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이 말레이시아 택배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택배시장 규모 변화(2017~2024년)

(단위 : 십억 원)

자료 : 자료 : www.ti-insight.com, (검색일 : 2021.7.12.)참고자료: www.ti-insight.com, (검색일 : 2021.7.12.)

퀴네앤드나겔, 세계 최초 탄소배출 제로 전세기 운항 프로젝트 완료

- > 퀴네앤드나겔(Kuehne+Nagel)과 International Airlines Group의 화물 사업부인 IAG Cargo가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 제로 전세기를 16회 운항 완료함
 - 이번 탈탄소 협력 프로젝트는 120만 리터의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SAF · Sustainable Aviation Fuel)로 평균 45톤의 자동차 부품과 기타 산업재를 슈투트가르트에서 애틀랜타까지 운항하는 것임
- > 본 프로젝트는 운송·물류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연료 개발과 탈탄소를 위한 운송수단의 가능성,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기업만의 노력이 아닌 공동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임

퀴네앤드나겔의 세계 최초 탈탄소 항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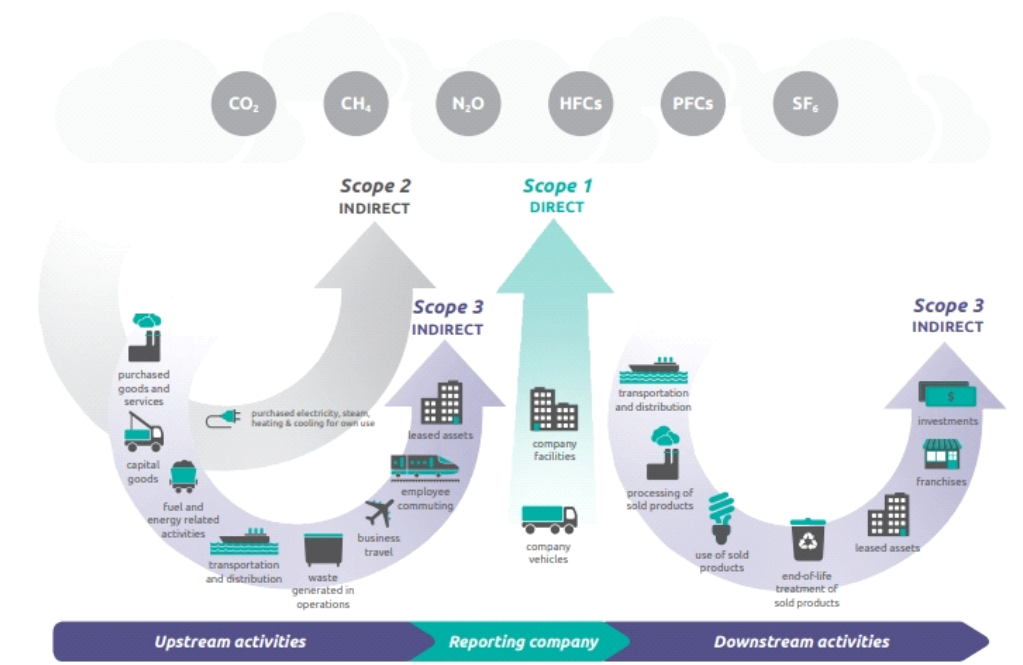


자료: <https://newsroom.kuehne-nagel.com/>

- >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범위에 따라 Scope 1, 2, 3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Scope 1'은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의미하고, 'Scope 2'는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함하며 'Scope 3'은 협력사를 비롯한 물류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포함됨
- > 퀴네앤드나겔은 물류업계 최초로 '탄소배출 제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2020년부터 Scope 1, 2단계, 2030년까지 Scope 3단계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글로벌 물류산업의 탄소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 ▶ 글로벌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 제조·물류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함

온실가스 프로토콜 범위의 단계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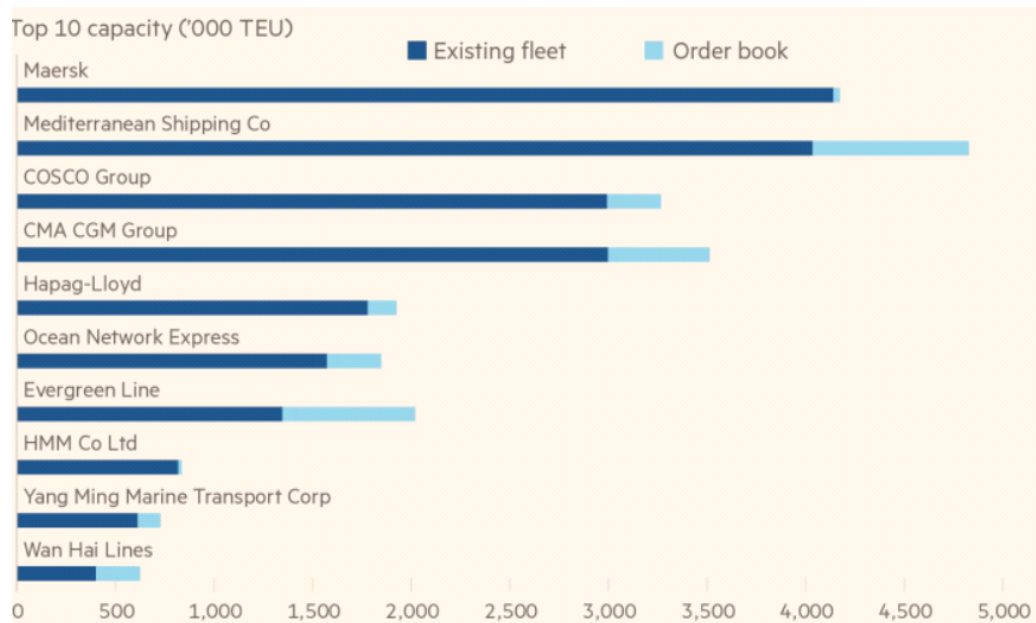
자료: <https://ghgprotocol.org>

참고자료: <https://newsroom.kuehne-nagel.com>, <https://ghgprotocol.org/> (검색일 : 2021.7.13.)

세계 해운사 지각변동 중심에선 MSC

- 지난 8일 Financial Times는 MSC가 Maersk를 제치고 세계 컨테이너 해운사로 등극하기 직전임을 보도했음
 - 현재까지는 Maersk가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조선 발주량을 고려할 경우 세계 1위의 컨테이너 해운사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임
 - 해운 컨설팅업체 Alphaliner에 따르면 MSC는 지난해 8월부터 60여 척의 중고선 매입과 43척의 신규 선박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남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로 등극하기 직전인 MSC



자료: Financial Times "MSC poised to overtake Maersk as biggest shipping group" 참조

- MSC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Maersk에서 25년을 보낸 후 외부인으로서 처음으로 경영진이 된 Soren Toft가 있음
 - MSC는 비상장 회사이며 철저하게 가족중심의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에 대한 해상물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해상운임이 증가해 수익이 크게 늘었으며 이렇게 늘어난 수익을 신규 투자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Soren Toft는 215개 개별 항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와 같은 전략은 만재된 선박으로 물품을 정시에 수송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아울러 Soren Toft는 기존 대중의 관심을 외면하고 비밀스러웠던 기업을 소셜 미디어 등에 오픈하면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제물류주선업체(freight forwarder)와 분석가들에 의하면 최근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MSC는 해상운송 관련 서비스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ren Toft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하고 낡은 IT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힘

러시아, 코로나19 충격으로 자국 수산물 수출구조 개선 빨라진다

● 코로나19 장기화가 명태 등 러시아산 수산물의 해외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 수산당국이 수출시장 다변화와 자국 수산업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음

- 러시아의 대표적인 수출 어종인 명태의 경우, 러시아 수산물 최대 고객인 중국이 러시아산 수산물의 자국 항만을 통한 수입을 금지하면서¹⁾ 생산량이 대폭 감소함
 - 2021년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은 1백99만6천 톤이었으나 실제 활용률은 2020년의 87%에서 올해 73%로 14% 포인트가 떨어졌음²⁾
 - 러시아 극동산 수산물의 중국측 수입항은 다렌(랴오닝성)과 칭다오(산둥성) 등임
 - 러시아 극동산 명태 도매가격은 지난 2월초 한때 kg당 65루블(한화 약 998원)까지 폭락한 바 있으며, 7월초 현재 소폭 회복했으나 여전히 kg당 76루블(한화 약 1천167원) 수준임³⁾
- 중국은 냉동컨테이너(리퍼컨) 등에 의한 수입은 허용하고 있음
 - 러시아산 컨테이너 수산물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연해주),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캄차카주) 및 한국 부산항을 경유해 중국에 수입되고 있음
 - 리퍼컨 운임이 톤당 100달러에서 400달러로 폭등하면서 컨테이너 수출도 원활하지 못함
- 러시아의 어획어업 연간 총생산량은 500만 톤을 상회하며, 이중 약 2백만 톤이 해외로 수출됨
 - 2019년 러시아 수산물 총생산량은 5백21만1천 톤이며⁴⁾, 총 어획량은 극동해역, 북극해역, 아조프·흑해, 불가스피해, 발틱해역 등 해역별 생산량을 종합해 집계됨
 - 러시아 어획량 중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47만 톤 안팎으로 전체의 10% 이하임
 - 러시아 최대 수산물 생산해역은 극동해역으로 전체 어획량의 60% 이상을 차지함
 - 어획량이 많은 주요 어종은 명태(연간 약 170만~180만 톤), 대구(연간 50만 톤), 청어(연간 40만 톤), 연어(연간 60만~70만 톤) 등임
- 러시아 양식업 총 생산량은 20만 톤을 상회하며 2019년 23만7천 톤을 기록함

러시아의 연간 수산물 총생산량(2018) 단위: 천 톤

구분	2017	2018	2019
어획량	4,864.5	5,111.4	4,974.1
양식 생산량	185.0	199.5	237.7
합계	5,049.5	5,310.9	5,2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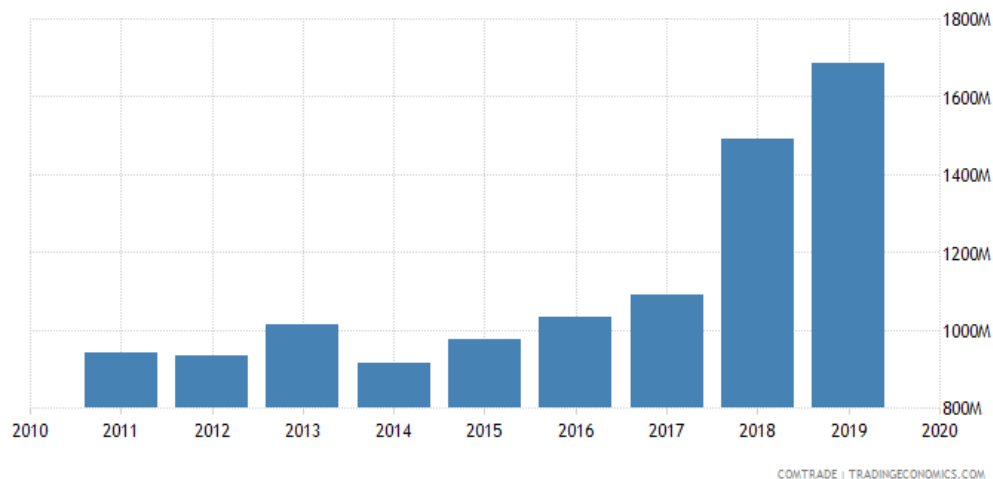
자료: FAO (<http://www.fao.org/fishery/facp/RUS/en#pageSection2>)

- 1) 중국의 항만을 통한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2020년 12월에 취해짐
- 2) "Russia modernizes its pollock fleet, but struggles to find buyers," seafoodsource, June 3, 2021(<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russian-pollock-a-season-brought-less-fish-and-money-higher-productivity-with-shift-in-strategies>).
- 3) "Turbulent times for Russian seafood," worldfishing&Aquaculture, March 12, 2021 (<https://www.worldfishing.net/news101/industry-news/turbulent-times-for-russian-seafood>) 및 <http://www.nfr.ru/media/files/monitoring/2021/monitoring..05.07.2021.pdf>
- 4)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R.FSH.CAPT.MT?locations=RU>)

● 러시아의 주요 수산물 수출 기업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서고 있음

- 기존의 한국, 중국 외에 러시아가 새롭게 개척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은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까지 넓히고 있음
- 현재 러시아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임
 -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은 2019년 150억 달러 어치, 437만 MT의 수산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했으며, 같은 해 러시아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액은 약 17억 달러였음⁵⁾
 - 이 중 중국의 러시아산 명태 수입액은 8억2,84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약 절반을 차지함⁶⁾
- 한국의 대 러시아 수산물 수입액은 연간 10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대러 수입액의 6% 수준임
 - 수입액이 가장 많은 수산물은 게('19년 4억7백만 달러), 명태('19년 약 1억4천만 달러) 등으로 최근 수년간 게 수입은 증가해온 반면, 명태 수입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로 감소해왔음
- 러시아는 향후 수산물 수출 시장 다각화의 대상지로서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의 수산물 수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음
 - 러시아는 과거 냉전 시기 우방이었던 베트남과 2010년대 중반 이후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교역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음

러시아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https://tradingeconomics.com/russia/exports/china/fish-crustaceans-molluscs-aquatics-invertebrates>

주: 대 중국 수출 수산물에는 어류 및 냉동, 갑각류, 연체류, 수생 무척추동물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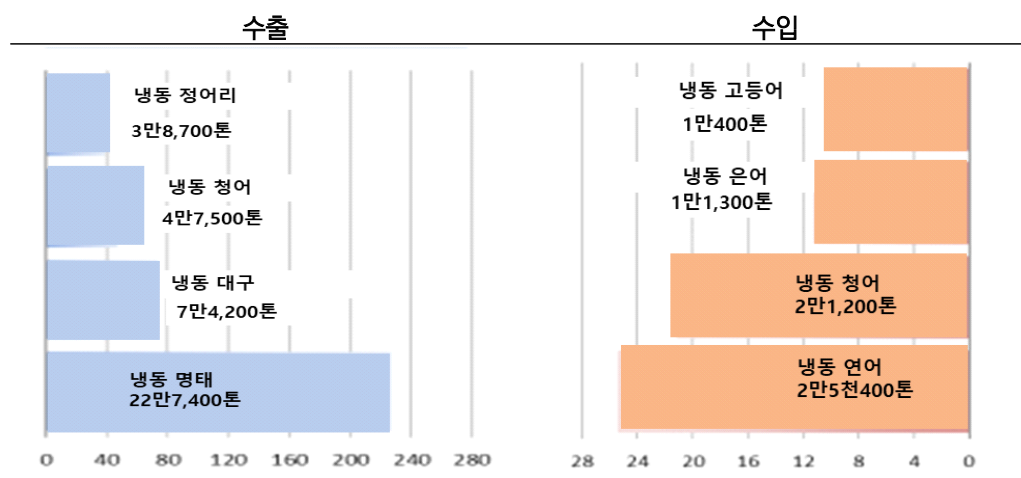
5) 유엔 COMTRADE 자료. Tradingeconomics.com에서 재인용(<https://tradingeconomics.com/russia/exports/china/fish-crustaceans-molluscs-aquatics-invertebrates>)

6) 베도모스찌, “중국,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러시아 수산물 수입 제한 시작”(Китай начал ограничивать импорт российской рыбы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2020. 10. 1 (<https://www.vedomosti.ru/business/articles/2020/10/01/841856-kitai-nachal-ogranichivat-import-ros-siiskoi-ribi-iz-za-koronavirusa>)

▶ 한편 러시아는 수산물 생산 및 수출 대국임에도 고등어, 정어리, 연어 등 일부 어종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 이는 러시아 소비 시장과 수산물 생산지가 동·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운송과 물류에 따른 가격 차이가 존재하며, 수산물 보관 등 물류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임
- 수산물 생산지는 러시아 전체 어획량의 60%를 차지하는 극동 지역에 집중해 있으나, 러시아 국내 소비 시장은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모스크바, 러시아 제2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이 있는 서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러시아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계절별로 차이가 나지만 주로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을 냉동 상태로 수입하고 있음(아래 그림 참조)
 - 연어는 주로 노르웨이에서 수입되며, 벨라루스에서 가공되어 러시아로 들어감
 - 노르웨이 기업들이 벨라루스를 경유해 러시아에 연어 가공품을 우회 수출하는 것은 벨라루스가 러시아가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수출에 따른 통관 및 관세 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러시아의 주요 수출입 어종별 수출입 현황(2021년 7월 5일 현재)



자료: ФГУП «Национальные рыбные ресурсы» (<http://www.nfr.ru/media/files/monitoring/2021/monitoring..05.07.2021.pdf>)

7) 2015년 1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공화국, 아르메니아를 회원국으로 하여 출범. 2010년 1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간 관세동맹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단일 경제공간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발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제한 충격으로 러시아 수산기업들은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운송, 보관 인프라 확장, 가공능력 제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러시아 굴지의 명태잡이 수산기업인 러시아수산회사(Русска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РРПК RFC)는 올해 초 미가공 어류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필렛⁸⁾과 민스 등 가공 제품 생산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늘렸음('21년 상반기 기준)⁹⁾
 - 러시아수산회사(RFC)의 연간 허용어획량은 30만 톤 수준이며, 러시아 극동에 투르니프, 인트라로스, 보스 토크루프롬, 소브가반리바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음¹⁰⁾
 - 동 회사는 2020년 9월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명태 가공공장을 건설하고 상업가동에 들어간 바 있음¹¹⁾
 - 이 시설은 명태 가공제품(명태 필렛 등) 155톤/일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연해주의 대표적인 소매 체인인 삼베리(самбери) 등에 수산가공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동 회사는 또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어선 현대화 계획에 발맞춰 2025년까지 11 척의 초대형-차세대 트롤 어선을 도입할 예정임

러시아수산회사의 연해주 수산가공공장 생산라인과 어선 투자계획

연해주 수산가공공장



러시아 신형 수퍼트롤러



자료: Intrafish.com

자료: 코메르상트(<https://www.kommersant.ru/doc/4207628>)

8) 저차 가공의 일종으로 생선살을 편육 형태로 얇게 썰어내는 것
 9) 러시아수산회사 홈 페이지(<https://www.russianfishery.ru/eng/press/newslist.php?page=1537>) 참조
 10) 저차 가공의 일종으로 생선살을 저미는 것
 11) "WATCH: Russian Fishery Company kicks off production at Far East pollock facility," Intrafish, Sept. 25, 2020 (<https://www.intrafish.com/processing/watch-russian-fishery-company-kicks-off-production-at-far-east-pollock-facility/2-1-881799>)

●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2030 러시아 농업·수산업 발전 전략'(이하 '2030 농수산 발전 전략')을 발표해 수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음

- 수산업 부문 발전 목표의 주요 골자는 러시아 전체 어선단의 80%를 러시아에서 자체 건조한 신조 어선으로 대체('24년까지 전체의 60%)하고, 어업·양식업 및 수산가공업의 총 가치를 4천180억 루블로 확대하는 것임¹²⁾
 - 2030년까지 수산물을 포함한 전체 수생생물자원 생산 목표는 5백39만6천 MT임
 - 2030년까지 상업적 양식업 생산량 목표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인 61만8천 MT임
 - 러시아 가구당 어류 및 어류제품 소비를 연간 25kg으로 확대함
-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어류 및 해산물(fish and seafood)의 수출 목표를 미화 85억 달러(한화 약 9조 7,350억 원)로 잡고 있음
- 한편 '2030 농수산 발전 전략'은 러시아 수산물 수출이 당면한 문제로, 원료 수출에 의존, 수산물 수출의 아시아태평양 국가(한국, 중국 등을 지칭)로의 지리적 편중, 글로벌 경쟁, 감염·비감염성 질병 등 생물학적 위험, 사회적 위험, 무역 전쟁 및 보호주의의 강화를 지목하고 있음

2030 러시아 농수산 발전 전략 중 수산업 부문 주요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0	2025	2030
어업, 양식업, 어류 가공업의 총부가가치	십억루블	281	358	418
어업, 양식업, 어류가공업 매출액	십억루블	563	750	888
수생생물자원 생산량	천톤	5,194	5,329	5,396
양식 생산량	천톤	272	598	618
가구당 수산물 소비량	kg/년	22.2	23.5	25
국내 수산시장에서의 러시아산 점유율	%	82.3	84.5	85
러시아 내 어선단에서의 신조 어선 비중	%	25	60	80
경제부문에서 연간 어업/양식업 종사자 평균	천명	147	155	160
전체 수산물 중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	38	54	65

자료: Strategy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Through 2030

주: 수산물 중 고부가가치 제품은 필렛, 민스, 필렛 또는 민스로 만든 식품, 통조림, 염장 또는 훈제 어류, 어분 및 어유 등을 포함

12) 이하 인용하는 전략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의 영어 번역본(Strategy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Through 2030) 사용(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Strategy%20for%20Development%20of%20Agriculture%20and%20Fisheries%20Through%202030_Moscow_Russian%20Federation_05-13-2020). 러시아어 원문은 엘렉트로닉 폰트(<https://docs.cntd.ru/document/564654448>) 참조(원문 명: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 러시아 정부는 국가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자국 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식품 원료 및 식품 공급국으로서 러시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24년까지 어류 및 해산물 공급이 2020년 현재 수준보다 5.7% 증가한 8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러시아는 농업 및 수산 부문에서 외국 제조회사의 현지화,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국내 정보원천 적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해외로부터 기술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특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혁신) 기술 개발 분야의 한계 돌파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식품산업 및 수산가공업의 개발, 디지털화, 환경 보전, 생산-물류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의 도입 등을 강조함
 - 또한 농업과 수산업 부문에서의 가공 고도화(deep processing) 등을 추진하기로 함
- 한편 최근 발표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는 2030년까지 어선어업 부문에서 세계 최고 어획량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30년까지 세계의 총 어류 생산량은 2억 톤을 돌파하며, 이중 식품어류 생산량은 1억8천1백만 톤, 어획어업 생산량은 9천7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전반적으로 향후 10년간 어획어업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어획어업 생산량은 현재 수준에서 약 60만 톤 증가해 최고 수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¹³⁾

● 현재 ‘2030 농수산 발전 전략’은 러시아수산회사(RFC), 노레보(Norebo) 등 러시아의 글로벌 수산기업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노레보(본사 무르만스크 소재)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이상 러시아 서부), 블라디보스톡,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이상 극동) 외에, 노르웨이(키르케네스), 벨기에, 네덜란드(로테르담) 등 유럽 및 아프리카에 자사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음
- 극동의 경우,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 냉동 컨테이너 터미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의 부산, 일본의 요코하마, 중국의 다롄 등을 연결함
- 무르만스크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를 거점으로 북극항로 연계 항로를 구축함

러시아 노레보의 글로벌 수산물류 네트워크(북반부 일부)



자료: 노레보 공식 홈페이지(<https://norebo.ru/logistics>)

13)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1-2030, p. 195.

- 이외에 기드로스트로이(Гидрострой), 아케안 림플로트(Океан Рыбфлот), 로스립플로트(Росрыбфлот), 도브로플로트(Доброфлот) 등 러시아 극동 지역에 근거를 둔 수산회사들도 최근 시장 다변화, 어선 현대화, 가공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33만5천 톤(2018년 기준)의 어획량 규모(쿼터)를 가지고 있으며, 수산가공업과 양식업을 겸하고 있는 기드로스트로이(본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소재)는 사할린, 시코탄, 이투루프 등에 5개의 현대적인 수산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도브로플로트(연해주 소재)는 최근 캐나다에 통조림 수출을 시작했으며, 러시아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툴라 지역에 냉동창고(2,500㎡)가 포함된 물류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했음¹⁴⁾

러시아의 주요 수산·양식 기업

기업 명	본사 소재지	주요 사업
노레보(Норвего)	무르만스크	· 어선어업(쿼터량 연간 40만 톤 이상) · 원양어업 · 수산 가공업 · 수산물 물류센터
기드로스트로이 (Гидрострой)	유즈노사할린스크(사할린 주)	· 어선어업(쿼터량 연간 30만 톤 이상) · 수산가공업(연어 등)
아케안림플로트 (Океанрыбфлот)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 스키(캄차카주)	· 냉동, 필렛 가공, 염장 및 훈제 · 통조림 가공
러시아수산회사 (Русска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연해주	· 어선어업(쿼터량 연간 30만 톤 이상) · 명태 필렛 가공 등
로싸그롤리징크 (Росагролизинг)	모스크바	· 농·수산 장비 및 기자재 임대 등

자료: 인터팩스(<https://www.interfax.ru/business/705378>) 및 각사 홈페이지 참조로 작성

주: 상기 기업들은 2020년 4월 러시아 농업부가 지정한 최고 시스템 기업(66개) 중 수산 부문에 포함된 기업임

➤ 러시아의 수산업 현대화 및 시장 다변화, 내수 시장 확대 노력은 수산 부문 한러 협력 및 한-러 간 수산업 공급사슬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향후 10년간 세계의 주요 수산국 생산 증가율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독 러시아 수산업은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노르웨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EAEU 지역(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에 진출해 관세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편익을 활용한 우회 진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EAEU 지역의 경제통합 추세와 한국의 신북방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극동의 경우, 이 지역에 근거를 둔 러시아 굴지의 수산기업들이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해 내륙의 주요 도시로 공급망을 확장하는 추세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음

14) 도브로플로트 홈페이지(<https://xn--90afwkbbltp.xn--p1ai/news/novosti-kompanii/dobroflot-postroit-logisticheskiy-tsentr-v-tulskoy-oblasti>) 참조

- 러시아-베트남 간 수산협력 강화 추세, 부산항 등의 유리한 중계무역 입지를 적극 활용해 가공 및 냉동보관 기능을 갖춘 동아시아 수산물 콜드체인 거점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노레보, 아케안립플로트, 도브로플로트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세계적인 수산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러시아 정부가 '2030 농수산 발전 전략'을 통해 수산업 고도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화 및 디지털 솔루션 개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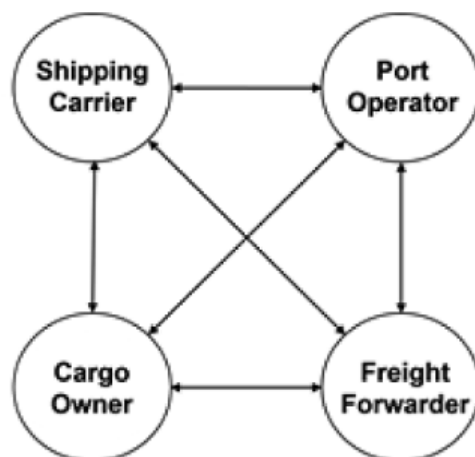
대만 해상 물류 서비스 공급사슬에서 관계적 이질성에 대한 연구

무엇을 왜 연구했는가?

- ▶ 다양하고 이질적인 관계의 특성이 서비스 공급사슬의 핵심 특성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공급사슬 관리를 위해서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요소들의 관리가 중요함
- ▶ 본 논문의 목적은 소셜 네트워크 이론의 렌즈를 통해 해상 물류 네트워크 내의 관계 구조를 탐구하는 것임
 - 서비스 공급사슬 관리에서 소셜 네트워크 이론을 사용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본 연구에서는 관계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시하려고 함
 - 소셜 네트워크 이론은 해양 부문의 권력, 지식 공유 및 혁신과 같은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렌즈 역할을 할 수 있음
- ▶ 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대만 해상 물류 네트워크에 관련된 41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데이터는 주제 분석과 준정량화(quasi-quantification)를 사용해 분석되었음

무엇을 발견했는가?

해상 물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프레임 워크(左)와 이질적 관계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右)



Factor impacting heterogeneity	No. of interviewees who identified this factor				Total
	Shipping carrier	Freight forwarder	Port operator	Cargo owner	
Service complexity	4	6	4	5	19
Cargo type	4	6	2	4	16
Cargo owner type	3	3	3	6	15
Port role	2	2	6	0	10
Trade route	3	2	2	1	8
Market structure	2	5	0	1	8
Dependency	1	3	2	0	6
Market power	3	0	1	1	5
Market adjacency	2	1	1	0	4
Personal relationships	1	1	0	0	2
Information sharing	0	2	0	0	2
Culture	1	0	0	0	1
Traditional practice	0	1	0	0	1

자료: Lin, M. S. M., Potter, A., & Pettit, S. (2021). "Relationship heterogeneity in Taiwanese maritime logistics service supply chains".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pp.388-392.

- 서비스 공급 네트워크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내 4개 주요 조직(cargo owner, freight forwarder, shipping carrier, and port operator) 간 양자관계(dyadic relationship)를 분석했음
- 인터뷰를 통해 해상 물류 네트워크 내에 구조적 공백(structure hole)이 존재하며, 이러한 공백이 특히 해상 물류 부문 내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 항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 해상 물류 네트워크에도 서비스 공급사슬의 특징인 이질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함. 연구결과 네트워크 행위자 간 계약이 존재하는 곳에서 강력한 연결(strong tie)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음
- 아울러 해상 물류 네트워크에서 주요 행위자의 관계 강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했음
 - 더욱 강력한 관계는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LCL 배송 처리를 위해 복잡한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존재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는 추가적인 지식과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약한 연결(weak tie)과 사회적 자본의 공유로 촉진됨

연구결과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 본 연구는 해상 물류 네트워크 내의 관계 구조에 대한 자세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자는 이질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반영해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원과 적절한 링크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음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환경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식별해 물류 서비스 공급망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음

자료: Lin, M. S. M., Potter, A., & Pettit, S. (2021). "Relationship heterogeneity in Taiwanese maritime logistics service supply chains".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21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시장 진출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모집기간 : 2021년 6월 16일(수) 09:00 ~ 7월 14일(수) 18:00 까지
2. 대상사업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및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3. 제출방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정보포털(withlogis.co.kr)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
4.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 2021년도 1~3차 모집 선정기업 4차 모집 자원가능(당해 연도 단일 기업 최대 2건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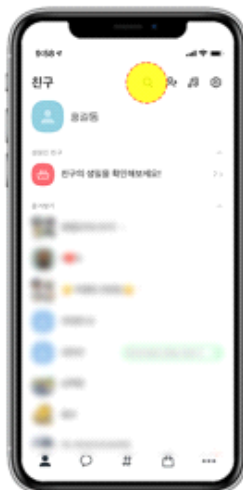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21.06.16~)

- 유튜브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zU7uOfuXJVd9VeJPk0IAeg>)을 통해 실시



-P-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